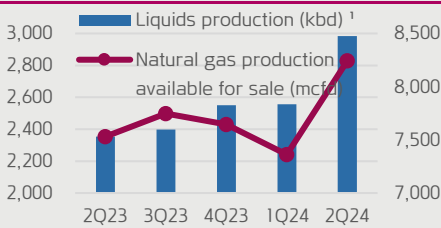




# 한국 에너지 Underweight (Mai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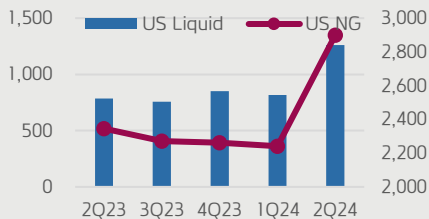
정유화학 Analyst 정경희  
caychung09@kiwoom.com

## 분기별 판매량(kbd, mcf)



(출처: ExxonMobi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분기별 미국 판매량(kbd, mcf)



(출처: ExxonMobi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해외기업 실적 리뷰

# ExxonMobil (XOM US)

## 정제/화학 약세에도 다각화에너지 장점 부각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다각화기업인 ExxonMobil의 2분기 실적은 최근 인수한 Pioneer Resources 및 Guyana 광구에 따른 Upstream 볼륨 및 이익 증가로 정제 및 화학마진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및 전기비 증가한 US\$9.2bn 순이익, Consensus 5.6% 상회 발표. 증가한 이익으로 분기주주환원 US\$9.5bn(US\$4.3bn 배당+US\$5.2bn 자사주매입) 실시. 우량한 재무구조에 따라 우수 Upstream 자산 추가, 이에 따른 수익 성장 및 환원 강화의 선순환 긍정적

### >>> 정제 및 화학마진 약세에도 2분기 실적 증가

동사는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다각화 회사로 Upstream인 E&P의 이익증가가 2분기 정제 및 화학마진 약세에도 전년동기 17%, 전분기 대비 12% 순이익이 증가한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2분기 중 Pioneer 인수 완료에 따라 US\$0.5bn 이 증가했고, 유가 상승도 일조했다.

유가는 동사 판매가 미국 지역 기준 전년동기비 11%, 전기비 5% 증가했지만 천연가스는 유럽지역 가스가격 하락, 온화한 날씨 등으로 전년동기비 28%, 전기비 53%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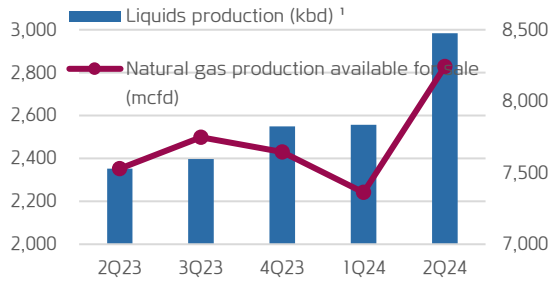
### >>> 시사점

정제마진과 화학마진 약세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다각화 에너지사의 특징, 즉 정유사이클, 화학사이클뿐 아니라 E&P 사업 영위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헤지되는 특징을 2분기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Downstream에 속하는 마진 약세에도 불구하고 Pioneer의 인수 완료에 따른 Volume 증가뿐 아니라 Crude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수익성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섹터에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전략은 정제마진, 혹은 화학 마진에 강력한 Conviction이 없다면, 동사와 같은 다각화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안정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동사의 수익성 호조는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져, 2분기 총 US\$9.2bn(US\$4.3bn 배당+US\$5.2bn 자사주 매입)의 주주환원 실시로 이어졌다. 또한 약 US\$26.5b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 Net Debt/Capital 6%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따라 우수한 Upstream 추가 및 Renewable Energy 투자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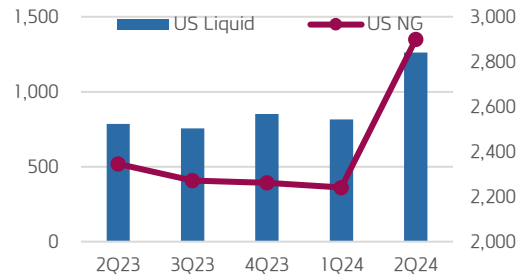
동사는 이러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전통 에너지뿐 아니라 신재생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분기중 CF Industries와 CCS agreement를 맺고, 전체 CO2 offtake를 5.5MTA까지 증가시켰고, Air Liquide와 수소 수송 네트워크 agreement 체결, SK On과 미국 배터리 생산을 위한 100Kt에 달하는 Lithiu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ExxonMobi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부문별 영업이익 및 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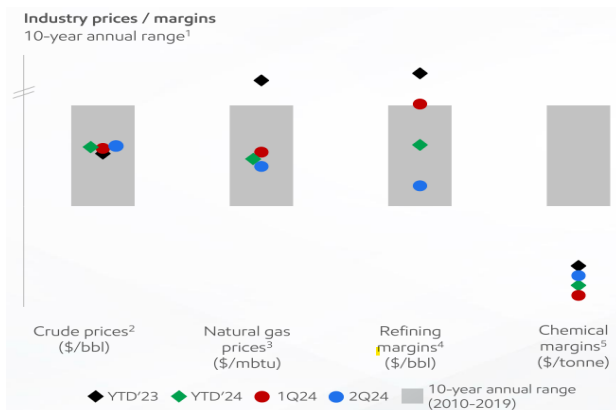
자료: ExxonMobi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ExxonMobil 부문별 분기 실적

Earnings/(Loss), \$M (unless noted)		2Q24	1Q24	4Q23	3Q23	2Q23
Upstream	United States	2,430	1,054	84	1,566	920
	Non-U.S.	4,644	4,606	4,065	4,559	3,657
	<b>Total</b>	<b>7,074</b>	<b>5,660</b>	<b>4,149</b>	<b>6,125</b>	<b>4,577</b>
Energy Products	United States	450	836	1,329	1,356	1,528
	Non-U.S.	496	540	1,878	1,086	782
	<b>Total</b>	<b>946</b>	<b>1,376</b>	<b>3,207</b>	<b>2,442</b>	<b>2,310</b>
Chemical Products	United States	526	504	478	338	486
	Non-U.S.	253	281	(289)	(89)	342
	<b>Total</b>	<b>779</b>	<b>785</b>	<b>189</b>	<b>249</b>	<b>828</b>
Specialty Products	United States	447	404	386	326	373
	Non-U.S.	304	357	264	293	298
	<b>Total</b>	<b>751</b>	<b>761</b>	<b>650</b>	<b>619</b>	<b>671</b>
Corporate and Financing		(310)	(362)	(565)	(365)	(506)
<b>Net income attributable to ExxonMobil (U.S. GAAP)</b>		<b>9,240</b>	<b>8,220</b>	<b>7,630</b>	<b>9,070</b>	<b>7,880</b>
Earnings/(Loss) per common share (U.S. GAAP)		2.14	2.06	1.91	2.25	1.94
Earnings/(Loss) per common share - assuming dilution (U.S. GAAP)		2.14	2.06	1.91	2.25	1.94
Effective Income Tax Rate, %		34 %	36 %	30 %	34 %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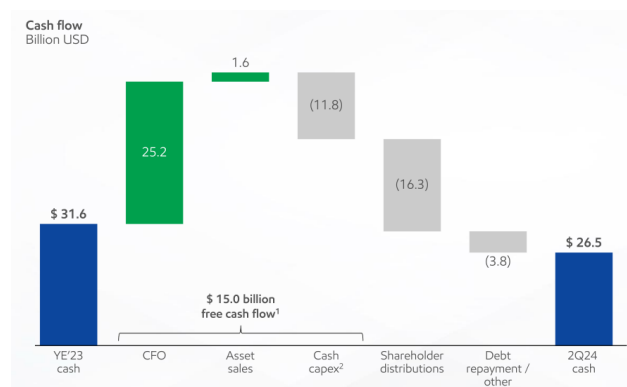
자료: ExxonMobi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제 및 화학마진 약세에도 견조한 이익 창출.. 다각화



자료: ExxonMobi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apital Allocation 전략, 주주환원 강화



자료: ExxonMobil,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의견 및 적용 기준

기업	적용 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 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3/07/01~2024/6/30)

매수	중립	매도
94.71%	5.29%	0.00%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